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H.R. 2731 / S. 1554)

- Estimates hold that 25,000 to 49,000 people who were adopted from overseas to the U.S. between 1945 and 1998 lack citizenship.
- According to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Health, 112,000 people were adopted from Korea to the U.S. between 1955 and 2015—it is unclear whether the naturalization process was completed for 20,000 of these people.
- Naturalization (gaining U.S. citizenship for children adopted from overseas) required a lengthy and complex process in intercountry adoption by American parents. Many adoptive parent(s) did not finish the naturalization process, due to ignorance, negligence, or abuse.
-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enacted by President Clinton in 2001) amended the laws to grant automatic citizenship to those **born overseas and adopted by parent(s) with U.S. citizenship**.
 - However, the law only applied to those under the age of 18 at the time of enactment (February 27, 2001).
- To address this loophole, the **Adoptee Citizenship Act** has been introduced in each Congress since 2016. The bill seeks to **automatically and retroactively grant U.S. citizenship** to those who reached adulthood at the time of CCA's enactment but would have otherwise been eligible.
 - The bill would grant the same benefits to intercountry adoptees, except for the age restriction. In addition, the bill features a provision that the individual must have been lawfully admitted to the U.S.
 - The 2019 bill also grants the benefit to those adopted by American parent(s) from overseas but currently do not reside in the U.S. (left out in the 2016 bill)
- In the House, the bill was introduced by **Rep. Adam Smith** (D, WA-9) and co-sponsored by **Rep. Rob Woodall** (R, GA-7) on May 14, 2019. As of November 7, 2019, the bill secured the co-sponsorship of 15 Republicans and 14 Democrats. **(29 co-sponsors in total)**
- In the Senate, the bill was introduced by **Senator Roy Blunt** (R-MO) and co-sponsored by **Senator Mazie Hirono** (D-HI) on May 21, 2019. As of November 7, 2019, the bill secured the co-sponsorship of 1 Republican and 3 Democrats. **(4 co-sponsors in total)**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 (H.R. 2731 / S. 1554)

- 1945 년 부터 1998 년 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25,000 명에서 **49,000 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5 년 부터 2015 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112,000 여 명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약 20,000 명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파악되지 않음.
- 해외 입양과정 중 시민권 취득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과정이며, 많은 입양가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변호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등의 이유로 입양인의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음.
- 이에 2000 년 소아 시민권 법 (Child Citizenship Act)가 연방의회를 통과, 2001 년에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 되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연방 제도를 개정.
 - 다만 법의 통과 당시, 적용대상을 제정일 (2001 년 2 월 27 일) 기준 만 18 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
- 이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Citizenship Act)가 2016 년부터 매 회기 발의되어, 소아 시민권 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해외 출신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automatically and retroactively) **시민권 부여를 목적으로 함.**
 - 법안 적용 요건은 연령제한 외에는 소아 시민권 법과 같으며, 추가로 입양 당시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또한 2019 년 법안은 적용 대상에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출생 미국입양인들도 포함. (2016 년 법안에는 제외)
-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2019 년 5 월 14 일 **아담 스미스** (민주, 워싱턴-9) 의원이 발의 (**랍 우달** 의원 공동발의)하여, 2019 년 11 월 7 일 현재 민주당 의원 14 명, 공화당 의원 15 명의 Co-Sponsor 를 확보. (**Co-sponsor 총 29 명**)
- 상원에서는 2019 년 5 월 21 일 **로이 블런트** (공화, 미주리) 의원이 발의 (**에이미 클로부차** 의원 및 **수잔 콜린스** 의원 공동발의)하여, 2019 년 11 월 7 일 현재 민주당 의원 3 명, 공화당 의원 1 명의 Co-Sponsor 를 확보. (**Co-Sponsor 총 4 명**)